

진지한 여가로서 시니어 독서 경험에 관한 연구

-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 참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nior Reading Experiences as Serious Leisure: Focusing on Participation in Public Library Reading Clubs

정진수 (Jin Soo Chung)*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토론
III. 연구방법론	VI.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시니어 인구의 급증과 함께 높아지는 시니어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참여를 통한 시니어 독서 경험을 진지한 여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소속 세 개 시니어 독서동아리 회원 18명을 대상으로 동아리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Stebbins(1982; 1994; 2009a; 2020)가 제시한 진지한 여가의 6개 특성에 따라 전사된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니어의 독서 및 독서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6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내심은 시력 저하와 시간 관리의 어려움에서, 경력은 독서 범위의 확장 및 정독·메모 습관의 형성 및 이해 심화를 위한 전략적 독서로, 개인적 노력은 지속적이고 심화된 독서 및 동아리 운영 참여로, 지속적 혜택은 인지적·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독특한 기풍은 상호 존중과 개방적 태도 및 심화된 독서 열망으로, 정체성은 자기 인식과 소속감으로 구체화 되었다. 종합적으로, 독서동아리 참여를 통한 시니어의 독서 경험은 인내를 출발점으로 하여 여가 경력과 개인적 노력을 거쳐 지속적 혜택과 독특한 기풍, 그리고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순환적 구조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진지한 여가의 이론적 틀을 적용한 시니어 독서동아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시니어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진지한 여가, 시니어 독서, 여가활동, 독서 경험, 독서 동아리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ading experiences of older adult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library reading clubs within the framework of serious leisure. As Korea becomes a super-aged society, the role of meaningful leisure in later life has gained importance.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one for each of the senior reading clubs (18 participants in total)—and the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Stebbins' (1982; 1994; 2009; 2020) six characteristics of serious leisure. Findings showed that perseverance appeared in overcoming eyesight decline and managing reading time; career in expanding reading scope and developing close reading habits; personal effort in sustained reading and active club participation; durable benefits in cognitive and emotional growth; unique ethos in mutual respect and openness; and identity in self-awareness and belonging as a reader. Emotion analysis revealed mainly negative emotions about physical limitations and strong positive emotions about cognitive and psychological rewards. Overall, seniors' reading experiences formed a cyclical process—beginning with perseverance and developing through career and personal effort toward durable benefits, ethos, and ident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rious leisure offers a valuabl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niors' reading experiences and provide practical insights for library programs that enhance the quality of later life.

KEYWORDS: Serious Leisure, Seniors, Older Adults, Reading, Reading Clubs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schung@duksung.ac.kr / ISNI 0000 0004 6327 3049)

• 논문접수: 2025년 11월 19일 • 최초심사: 2025년 12월 1일 • 게재확정: 2025년 12월 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181-204,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4.202512.181>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여가 활동은 시니어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노년기의 자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2025)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유엔(UN) 기준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수치상의 변동을 넘어 사회·문화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경제력과 건강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여가를 즐기는 시니어를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 부르기도 하듯이 노년기의 삶은 더 이상 보호·돌봄·교육의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보건복지부(2023)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1.3%가 여가생활을 즐긴다고 응답하여, 여가가 시니어 다수의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Stebbins(2009a; 2020)는 인간의 여가를 일상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그리고 진지한 여가로 구분하였다. 이 중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는 단순한 휴식이나 오락이 아니라, 지속적 몰입과 학습, 공동체적 교류를 포함하는 활동으로서, 참여자는 체계적인 추구 과정에서 본질적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장과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진지한 여가의 관점에서 볼 때, 독서는 시니어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신체적 제약이 적고, 인지적·정서적 몰입을 동시에 제공하며, 내면의 성찰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니어 독서를 다룬 많은 연구와 정책은 주로 '결핍'의 시각에서 접근해 왔다. 예를 들어, 노년기의 독서를 감소와 문해력 저하(문화체육관광부, 2023; OECD, 2024), 디지털 정보격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보건복지부, 2023) 등을 강조하며 시니어를 돌봄과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도서관 서비스 분야에서도 유사한 관점이 관찰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는 65세 이상 인구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 및 정책적 필요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시니어를 교육과 지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하여, 시니어의 '즐거움'과 '능동성'을 조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시니어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의미 추구의 주체로 바라보는 진지한 여가의 개념을 기반으로 시니어 독서 경험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지한 여가의 개념적 틀을 적용하여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의 독서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한다. 특히 진지한 여가의 특성이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니어에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시니어가 즐겁고 의미 있게 여기는 진지한 여가로서의 독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시니어의 진지한 여가 연구뿐 아니라, 시니어 독서를 위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기획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니어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범위를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회원으로 정의한다. 국내에서 '시니어'는 문화, 정책, 홍보 등 비공식적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사회적 용어이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주로 '노인' 또는 '고령자'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으로 정의한다. 『도서관법』은 '노인'이나 '시니어' 등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동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독서문화진흥법』에는 노인·고령자·시니어와 관련된 용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술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 목적에 따라 '노인', '고령자', '시니어' 등 용어 사용과 연령 기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노인'을 사용한 연구(배경재, 2021; 임성관, 2011; 조은주, 장혜란, 2010; 최유진, 차미경, 2019), '고령자'를 사용한 연구(김다운, 차미경, 2016; 김종애, 2024; 박옥화, 2007), 그리고 '시니어'를 사용한 연구(오의경, 박옥남, 2023; 이순영, 김주환, 2025) 등이 그 사례이다.

2. 진지한 여가의 개념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Stebbins(1982; 2009a; 2020)은 여가가 오랫동안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 연구가 여전히 통합된 분석 틀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일수록 인간의 여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Stebbins(2009a; 2020)의 관점에서 진지한 여가는 단순한 휴식이나 오락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동반하는 자기실현적 활동이다. 진지한 여가의 참여자들은 직업적으로 종사하지 않더라도, 여가 시간을 통해 해당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축적하며 하나의 경력(career)을 형성한다.

Stebbins(2020)에 따르면 진지한 여가는 아마추어(amateurs), 취미생활자(hobbyists), 자원봉사자(volunteers)가 고도의 실질성과 흥미, 그리고 충만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활동이다. 이들은 단순한 여가 참여자가 아니라, 장기간의 몰입과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취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로 이해된다. 이 세 유형은 모두 내적 동기와 장기적 몰입을 기반으로

하며, 진지한 여가의 자기주도적 특성을 공유한다. 세부적으로, 아마추어는 예술·과학·스포츠 등 전문 직업군과 대응되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취미생활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1) 수집가, (2) 제작형 취미생활자(makers and tinkers), (3) 낚시와 같은 비경쟁적이지만 규칙이 있는 활동의 참여자, (4) 경쟁적이지만 대응하는 전문 직업군이 없는 스포츠나 게임 선수, (5) 독서와 같은 인문학적 취미 추구자이다. 한편 자원봉사자는 경제적 보상 없이 이타적 혹은 자기이익적 동기에서 타인을 자발적으로 돕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진지한 여가 활동에는 공통적으로 6개의 핵심 특성이 존재한다(Stebbins, 2009a; 2020). 첫째, 진지한 여가 활동에서 지속적인 충만감과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심(perseverance)”이 요구된다. 둘째, 개인의 노력과 경험 축적을 통해 여가 “경력(career)”이 형성된다. 즉, 진지한 여가에는 우연성, 전환점, 성취, 그리고 참여의 단계가 이어지는 경력적 흐름이 존재한다. 셋째, 참여자는 지식, 훈련, 기능 습득을 위한 “개인적 노력(personal effort)”을 기울인다. 넷째,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혜택(durable benefit)”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자기만족, 즐거움, 자아실현, 정신적 풍요, 성취감, 사회적 상호작용 등 비가시적 보상뿐 아니라, 창작물이나 기록물 등 물리적 결과물도 포함된다. 다섯째, 진지한 여가 참여자 집단 내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기풍(unique ethos)”은 공동체적 소통과 관행을 통해 형성되는 고유한 정신과 문화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여섯째, 이러한 특성들이 종합되어 형성되는 “정체성(identity)”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된다. 이 6개의 특성은 각각이 배타적으로 독립된 구분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진지한 여가를 단순한 활동을 넘어 정체성 형성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확립시킨다.

Stebbins(2009b)는 진지한 여가 개념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진지한 여가가 자아실현과 사회 세계(social world)에 관련된 정보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진지한 여가의 특성은 정보 탐색과 활용, 지식의 생산과 공유를 중시하는 문헌정보학의 본질과도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아실현을 위한 정보활동은 진지한 여가의 “개인적 노력”과 “경력”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사회 세계 속에서의 소통 활동은 “독특한 기풍”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여가활동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활동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보면, 문헌정보학 영역의 정보활동은 진지한 여가 중에서도 “인문학적 취미”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Hartel, 2003; Stebbins, 1994; 2009b). 인문학적 취미란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인문학적 지식을 추구하며,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성취를 얻는 여가 활동을 의미한다(Stebbins, 1994). 이러한 인문학적 추구 과정은 지식의 습득과 표현이라는 폭넓은 정보활동을 수반한다. 지식의 습득은 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식의 표현은 인문학적 취미를 가진 개인이 자신이 발견한 지식이나 경험을 동료나 일반 대중과 공유함

으로써 실현된다.

Hartel(2003)은 진지한 여가가 풍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다양한 정보활동이 일어나는 환경임을 전제하며, 취미생활자의 정보활동(information activities)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20명의 고메(gourmet) 요리 취미생활자 인터뷰를 통해 9단계 활동과 각 단계별 정보활동 유형을 밝혀냈으며(Hartel, 2006; 2009), 이를 통해 여가와 정보행동 간의 개념적 연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진지한 여가를 문헌정보학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 집단주의적 메타이론(collectivist metatheory)과 도메인 분석 접근을 결합하였다. 나아가 인문학적 취미, 아마추어 음악, 달리기 등 다양한 진지한 여가 유형에서 Hektor의 정보행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진지한 여가와 정보활동 간 개념적 연관성을 확장하였다(Hartel et al., 2016). 또한 Mansourian(2021)은 Stebbins(2009a)의 6개의 특성을 다양한 아마추어·취미·자원봉사 활동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이 특성들이 진지한 여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개념적 틀임을 입증하였다.

3. 시니어 독서

진지한 여가의 틀을 적용한 시니어 독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나 그 중 Rothbauer와 Dalmer(2018)는 '생명줄(lifeline)로서의 독서'라는 은유를 통해 노년기의 독서 경험 의미를 분석한 연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Rothbauer와 Dalmer(2018)에 따르면 독서가 시니어에게 삶의 궤적을 잇도록 하고, 고통과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가능케 하며, 삶을 지탱하는 구명선으로 작용한다. 즉, 독서는 단순한 인지적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읽는 몸(reading body)'은 노화로 인한 제약과 의미 있는 삶의 지속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행위로 나타났으며, 독서 경험은 자율성 유지, 정체성 보존, 사회적 관계 회복, 삶의 성찰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Dalmer et al.(2023)은 진지한 여가의 공간으로서 도서관 경험을 탐구하였다. 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캐나다 공공도서관 폐쇄가 시니어의 잡지 읽기 여가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팬데믹 기간 디지털 플랫폼 이용으로 전환한 일부 시니어도 있으나 다수의 시니어가 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잡지 읽기를 중단했으며, 이는 이들의 상실감 경험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진지한 여가의 개념을 직접 적용한 시니어 독서 경험 연구는 드물지만, 시니어 독서 전반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성은(2024)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9,52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시력, 인간관계 만족도가 독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연령이 낮고,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시력이 좋고,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독서활동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인(2022)은 55세 이상 고령층 비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독서

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습관 부족, 시력 저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독서하지 않으며, 독서를 지적 자극이나 즐거움의 수단보다는 정보 획득이나 시간 보내기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순영과 김주환(2025)은 50세 이상 비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운영하는 독서모임과 자율 독서모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독서모임 참여가 독서뿐만 아니라 독서 인식과 행동 모두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운영 여부보다 일정 기간 이상 정기적인 독서모임 참여 경험이 더 중요하다”(p.339)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시니어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드문 가운데 이순영과 김주환(2025)의 연구 결과는 시니어 독서 모임의 유형별 장단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적·집단적 독서 경험의 확장은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더욱 구체화 되어 시니어 독서에서 있어 도서관의 중요성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최유진과 차미경(2019)은 시니어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이유와 가치체계를 분석하여, 전통적 도서관 기능이 여전히 주요 속성이며, 도서관 이용을 통해 자기만족, 성취감, 즐거움,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보고했다. 이호신(2019)은 은퇴 노인 3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책 읽기가 건강한 삶을 위한 지향점이 되고, 도서관이 규칙적인 생활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시니어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의 제반 환경 마련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배경재(2021)는 전국공공도서관의 시니어 이용자 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이 시니어 이용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노인 이용자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도서관 장서, 장비, 서비스, 공간, 및 이용자 구분 등을 제안하였다. 오의경과 박옥남(2024)은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장서, 프로그램, 서비스, 공간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분석하여,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현대 시니어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애(2024)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 시니어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 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 감정의 정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스트레스 인지와 반응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조은주, 장혜란, 2010), 독서에 내재된 치료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확인하여 노년기 독서 치료프로그램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 연구(임성관, 2011), 68-73세 노인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한 결과 이들이 내면의 상처와 갈등을 해소하고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며 주변인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독서흥미도 유발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공우미, 김현애, 2017) 등이 있다.

Ⅲ.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틀 내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유사한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집단적 의미를 도출하는 심층 토론형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데이터의 수집 절차와 과정은 Krueger와 Casey(2015)를 준용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 생각, 감정을 심층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를 위해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Patton, 1990)을 사용하였고, 현재 독서 및 독서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는 3개의 독서 동아리 회원으로서 A 독서 동아리 회원 7명, B 독서 동아리 회원 7명, C 독서 동아리 회원 4명이다. 이들은 서울시 K구 내에 시니어 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 근처 공공도서관에 등록된 시니어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며 모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글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표 1〉 참조)을 사전 열람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하였다.

2. 데이터 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동아리별로 각각 진행되었다. A 동아리는 2025년 7월 28일, B 동아리는 9월 10일, C 동아리는 9월 25일에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표 1〉과 같이 Stebbins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6개 특성을 분석 틀로 구성하였다.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는 필요시 보충 질문을 제시하고 반응을 관찰·기록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연령, 성별, 교육 수준)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녹음 및 자동 전사되었다. 인터뷰는 A 동아리 1시간 15분, B 동아리 1시간 32분, C 동아리 1시간 10분이 각각 소요되었으며, 총 95쪽의 전사본이 생성되었다. 연구자는 녹음 자료를 반복 청취하며 교차 검토·수정·보완하여 최종 전사본을 확정하였다.

〈표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6개 영역		인터뷰 질문	
1	인내심	1.1	독서를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극복하십니까?
		1.2	동아리 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극복하십니까?
2	여가 경력	2.1	독서를 하면서 지식이나 교양을 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독서를 할수록 독서를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2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좋은 동아리 운영 또는 참여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개인적 노력	3.1	독서활동을 하시면서 독서와 관련한 개인적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3.2	독서회를 운영, 참여에 대한 개인적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4	지속적 혜택	4.1	독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또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4.2	독서회 운영, 참여는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또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5	독특한 기풍	5.1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를 하는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5.2	독서회 운영, 참여하는 회원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6	정체성	6.1	독서가 본인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독서가 본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활동입니까?
		6.2	독서회 참여가 본인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독서회 회원이라는 것이 본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3.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Ritchie와 Spencer(1994)가 제안한 프레임워크 분석(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주제의 의미 구조를 도출하고, 반복 가능한 절차를 통해 분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분석 절차는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데이터에 익숙해지기(familiarization) 단계에서는 전체 전사본과 연구자 노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하였다. 둘째, 핵심 주제의 틀 확인(identifying a thematic framework)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개념을 메모하여 주제의 틀을 도출하였다. 셋째, 색인화(indexing) 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 틀을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여 코딩하였다. 넷째, 도표화(charting) 단계에서는 코딩된 발화 내용을 주제별로 시각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맵핑과 해석(mapping and interpretation) 단계에서는 코드 간 관계의 패턴을 파악하고,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단계인 도표화(charting) 과정에서 코딩된 자료를 진지한 여가의 6개 특성별로 재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주제(상위코드)와 세부 주제(하위코드)를 중심으로 참여자 발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매트릭스 형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표 4〉 참조). 이 매트릭스는 각 주제의 의미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해석 단계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수집된 인터뷰 전사본과 연구자 노트는 프레임워크 분석의 틀 내에서 계속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방법(Glaser & Strauss, 1967)을 적용하여 코딩하였다. 인터뷰 질문을

기반으로 설정한 상위 코드를 주제의 틀로 삼고,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패턴을 이루는 하위 코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인터뷰 분석 과정에서 Stebbins의 6개 특성별 주요 범주가 반복적으로 재현되었으며, 세 번째 그룹(A·B·C) 분석 시점 이후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지 않아 자료 포화(data saturation)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Corbin & Strauss, 2015; Glaser & Strauss, 1967).

또한 포커스 그룹 참여자의 발화에 내포된 정서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감정 코딩(emotion coding)(Krueger & Casey, 2015)을 실시하였다. 전사본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단서어를 질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KNU 한국어 감성사전(은병원 외, 2018)의 긍정·부정어와 대조하여 확정하였다(〈표 2〉 참조). 이후 전사본 전체를 재검토하며 확정된 긍정어와 부정어를 코딩하고, 감정어가 포함된 코드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달리 빈도 등 수치 제시가 양적 비교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Krueger와 Casey(2015)의 지침에 따라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맥락적 의미를 우선하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데이터 코딩의 기본 단위는 의미를 구성하는 문장 또는 구절이었다. 질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문장이나 문단 등 형식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나 생각을 담은 의미 단위(unit of meaning)가 기본 분석 단위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텍스트의 길이에 관계없이 이를 분석 단위로 삼았으며(Corbin & Strauss, 2015; Strauss & Corbin, 1990), 문장 및 구절 수준의 코딩을 병행하였다. 특히 대화의 맥락이 중요한 경우에는 참여자 발화의 전후 관계를 함께 고려하였다.

〈표 2〉 감정어 리스트

감정	단서어
긍정어	감동, 감사, 개선, 고마운, 기쁜, 도움, 만족, 발전, 보람, 뿌듯, 성취, 안정, 재미, 좋, 즐거운, 친절, 편리, 편안, 해결, 행복, 희열
부정어	걱정, 방해, 부족, 불안, 불편, 싫은, 아픈, 어려운, 피곤, 피로, 힘든

4. 연구의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기준인 진실성(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확증 가능성(confirmability)을 확인하였다. 진실성 확보를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발화의 맥락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전사본과 녹음 파일을 반복적으로 대조하여 누락이나 왜곡을 최소화하였고, 모호한 내용은 참여자에게 재확인(member checking)하였다. 전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 특성과 연구 맥락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환경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연구자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하고 Corbin과 Strauss(2015)가 구체화한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는 마지막 독서 동아리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주제나 범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을 포화로 판단하였다. 확증 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사전 검토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성찰적 노트를 작성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참여자 발화 인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배경

연구 참여자는 3개 동아리 소속으로 총 18명이다. 성별 구분을 보면 여성 11명과 남성 7명, 연령은 60대 8명, 70대 8명, 80대 2명이다. 학력별 구분은 대졸 9명,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6명, 대학원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이다. 3개 동아리 모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였으며, 연령, 학력 등과 관련된 가입 조건은 없는 열려있는 동아리이다. 그러나 C 동아리의 경우, 여성으로 제한하여 회원 가입을 받는다. 동아리별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아리 구분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학력		
	여성	남성	60대	70대	80대	대졸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A 동아리	4	3	7	0	0	2	4	1
B 동아리	3	4	1	4	2	4	2	1
C 동아리	4	0	0	4	0	3	1	0
전체	11	7	8	8	2	9	7	2

2. 진지한 여가 특성

가. 도출된 주제

시니어의 독서 경험은 Stebbins(2009a; 2020)가 제시한 “인문학적 취미”에 해당하며, 진지한 여가의 전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Ritchie와 Spencer(1994)의 프레임워크 분석 절차 중 도표화 단계에서 Stebbins가 제시한 진지한 여가의 여섯 가지 특성에 따라 코딩된 발화 데이터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주제와 세부 주제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4>는 시니어

독서 경험의 전체적 구조를 한눈에 제시하는 개념적 표로서, 이후 각 특성별 심층 분석(나~마)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표 4〉 진지한 여가 특성별 도출 주제

주제	세부 주제
인내심	시력 저하 문제
	시간 관리
경력	독서 범위 확장
	정독 및 메모 작성 습관 형성
	이해 심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활용
개인적 노력	지속적·심화 독서
	동아리 운영 노력
지속적 혜택	인지적, 정신적 성장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통
독특한 기풍	상호 존중과 개방적 태도
	심화된 독서활동 열망
정체성	독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인식
	소속감

나. 인내심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 및 독서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내심과 관련하여 특히 시력 저하와 시간 관리 문제를 인내심이 필요한 지점으로 언급했다.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는 세 개 동아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독서의 어려움이였다. 참여자들은 “시력이 아무래도... 시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C-3), “눈이 자주 침침해져서 돋보기 쓰고 보다 1시간 지나면 나중에 글자가 두 개로 보여요”, “글자 폰트가 12 이상은 되어야 잘 보이니까”(C-1) 등으로 진술하며 시력 문제로 인한 독서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 방식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참여자는 큰 글자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읽는다고 하였으며(A-2, A-3, C-1), 한 참여자는 근시와 노안이 동시에 있어 인쇄본 독서에는 돋보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자책을 읽을 때는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한다고 하였다(C-1).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밝은 LED 조명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하며 자연광 아래에서의 독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A-5, B-7).

은퇴로 인해 이전보다 독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A-4, B-2, B-3, B-5). 다만 시력 저하와 눈의 피로로 인해 주로 낮 시간대에 독서가 이루어졌고(A-4, A-5, B-2, C-3), 큰 글씨 도서는 독서에 적합하나 무겁고 두꺼워 대출이 어려워 도서관 개관

시간에 열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A-4, B-4).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 동아리 모임이 격주(A 동아리) 또는 월 1회(B·C 동아리)의 정기 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상생활 계획에서 동아리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정기적 모임은 독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생활 리듬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독서와 독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늘 독서하고 시를 쓰기도 하지만 관심 있는 도서가 선정된 경우에만 모임에 참여하며, 독서나 동아리 활동을 위해 인내를 요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B-8). 또 다른 참여자는 인내심과 관련하여 독서 의지를 언급하며 “읽다가 힘들어 중단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또 독서의 욕구가 생겨 다시 독서를 하게 된다”(B-6)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진지한 여가의 인내심 특성이 개인적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양상임을 보여준다.

다. 경력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 및 독서 동아리 참여를 통해 독서 경험과 전문성이 확장되며 발전하는 여가 경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특히 독서 범위의 확장, 정독 및 메모 습관의 형성, 이해의 심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활용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홀로 독서를 하다가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접하게 되어 독서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A-2)의 표현을 옮기자면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차원이 다른 독서”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동아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비문학 위주의 독서를 하던 참여자(A-2, A-6)는 모임을 통해 소설을 읽게 되면서 서사적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동아리의 경우, 읽을 책을 구성원 투표로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혼자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도서에 도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B-2, B-4).

참여자들은 정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신의 “첫 번째 목표는 정독”이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흘러 읽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정독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A-3). 또 다른 참여자는 이 정독의 이유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니 나도 걸맞게 이야기하고 싶어” 정독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A-4).

정독과 함께 자주 언급된 변화는 메모 습관의 강화였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원래 독서 중 메모 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동아리에서의 토론을 계기로 기록의 양과 깊이가 늘었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A-2)는 “전에는 필요한 것만 메모했는데 지금은 읽는 중에 ‘이 부분은 가서 이야기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메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관점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제나 내용이 낯설거나 어려운 책의 경우, 많은 참여자들이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책을 추가로 읽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고 언급하였다. 한 참여자는 “한 권을 읽는 것이지만 실제로

는 관련된 책을 열 권까지 읽기도 한다”(B-3)고 하여 학습형 독서 태도를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또한 유튜브나 다른 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 이해를 보완한다고 진술하였다(A-3, B-2, B-4). 한 참여자(A-3)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과학과 역사를 접목시킨 『이기적인 유전자』나 『코스모스』 같은 책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해설을 해 준다든지, 또 상당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대담 형식으로 다루는 영상이 많아요. 그런 유튜브를 본 다음에 다시 책으로 접근하면,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느새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또한 일부 참여자는 독서와 영상 감상의 결합을 통한 독서의 즐거움을 언급하였다. 한 참여자(B-2)는 책과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를 연계해 감상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진술하였다.

제가 무척 재미있게 읽으면서 아주 희열을 느꼈던 게 『장미의 이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구조라든가 인물에 대해 노트를 잘 써요. ……[중략] 정말 힘들게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저는 흥미를 느낀 책이면 언제나 그와 관련된 영화나 다른 작품이 있는지 꼭 찾아봐요. 그런데 마침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던 건 힘들게 책을 읽었기 때문에 드라마 장면이 나올 때 책 속 문장이 머릿속에 자막처럼 짝 펼쳐지는거예요. 드라마와 책을 동시에 읽는 거죠. 전 그게 그렇게 흥미롭고 너무 재미있어요. 독서의 희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은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로도 제작이 되었다는데, 국내에도 들어올지…. 책으로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긴 오페라를 감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독서 범위의 확장, 정독과 메모 습관의 강화, 그리고 이해 심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활용을 경험하며 여가로서의 독서 경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로써 독서가 단순한 학습이 아닌, 지속적 기술·지식 축적의 여가 경력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라. 개인적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 및 독서 동아리 참여와 관련하여 지속적·심화 독서를 위한 노력과 좋은 동아리 운영을 위한 실천을 개인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속적이며 심화된 독서는 단순히 독서량의 확대뿐 아니라 책 쓰기, 다독독, 독서 자체에 대한 열망으로 구체화 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주일에 한 권씩, 연간 최소 50권”(B-4)을 목표로 하거나, “독서 노트와 메모를 정리해 책 소개서를 출판하고자 한다”(A-3, B-6), “감명 깊은 책은 한 번 읽을 때마다 낱씨를 기록하며 8독, 10독까지 반복한다”(B-3)고 진술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독서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인식하며 “늘 정독

하려고 노력한다”(B-3), “건강을 잘 관리해 앞으로도 오래 독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B-4, C-2)고 언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독서 동아리의 지속적 운영과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동아리 리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며(A-2, A-6, B-5, B-6), 포커스 인터뷰 중 일부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A 동아리의 경우, 리더가 연간 도서 목록을 사전에 구성하여 공개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들은 가입 시점부터 일 년간의 독서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리더께서 정리를 잘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언급하며 리더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B와 C 동아리의 리더들 또한 회원 모집과 참여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예를 들어, B 동아리 리더(B-5)는 독서에 관심 있는 시니어를 만나면 명함을 건네며 “○○도서관의 ○○ 독서 동아리에 참여해보세요”라고 안내한다고 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모임방을 통해 함께 읽을 도서 선정 투표를 진행하고, 봄·가을에는 야외 모임을 개최하는 등 회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마. 지속적 혜택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와 독서 동아리 참여를 통해 삶의 질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독서는 인지적 자극과 정신적 안정의 원천이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통과 연대감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 혜택으로 인식되었다. 다수의 참여자는 독서가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정신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한 참여자(A-7)는 “책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늘 하루 이만큼 읽었다거나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나이 들과 정신적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한 참여자(C-2)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계속 쪼그라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뇌에 세포가 생겨난다고 하니 쇠퇴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독서를 통해 지속적인 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B-5)는 “나 혼자서는 약하지만, 책을 읽고 연구한 성과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만큼 나는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신은 노화되지만 지적인 면에서의 진화를 통해 신체적 나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동아리 활동은 사회적으로 은퇴한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통의 중요한 매개로 기능하였다. 한 참여자(C-2)는 “우리가 뒷방 노인네가 되지 않고 지적인 세상 속에서 독서를 매개로 탐구를 이어간다면, 세상과 더불어 소통하는 느낌을 받고 고립되지 않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독서 동아리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A-4)는 은퇴 후 여러 모임(동문회, 직장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임들이 기존 인연의 연장선에 있는 관계라면, 독서 동아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공동체”(A-7)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한 참여자(B-5)는 독서 모임에서는 매번 새로운 도서를 읽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함으로써 풍부한 상호소통이 가능하지만, 기존 사회적 인연을 기반으로 한 모임에서는 일상적 대화가 반복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핵개인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책을 매개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이러한 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C-2)이라고 전망하며, 독서 동아리 참여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바. 독특한 기풍

연구 참여자들은 독서하는 사람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개방적 태도를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풍으로 인식하였다. 한 참여자(C-3)는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타인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언급하며, 독서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C-2)는 성인 자녀에게 책을 권하거나 자녀로부터 책을 추천받으며, 독서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고 하여 독서를 매개로 자녀와도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독서 동아리는 참여자들에게 자아 표현과 상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 참여자(B-5)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좋다”고 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A-4)는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지닌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 분야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A-6)는 “같은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다른 참여자(A-3)는 “반론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불쾌감이 생길 수 있으나, 토론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되는 쾌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하지만 세대 차이가 이러한 소통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A, B, C 세 동아리는 처음부터 시니어 중심의 모임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이 참여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은 모두 시니어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한 참여자(C-2)는 “젊은 분도 함께하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참여했다가도 곧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시니어가 다수인 모임에서 연령 차이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독서 토론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도, 보다 심화된 수준의 독서 모임을 지향하였다. 한 참여자(B-4)는 “과연 우리가 수준 높은 토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하였으며, 다른 참여자(B-6)는 외부 독서 토론 수업을 수강한 경험을 언급하며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는 말하기가 서툰 자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 정체성

참여자들에게 독서와 독서 동아리 참여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참여자들은 독서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독서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드러냈다. 한 참여자(B-2)는 독서를 좋아하여 동아리에 참여하지만, 매번 완독하고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 이상의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동아리 참여는 “나 자신의 질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최근 유튜브 쇼츠 등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많아졌지만, “앞으로 살 세월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쉬운 길이나 사이드로 가지는 않겠다”(B-5)며 독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다른 참여자(B-3)는 도서관으로부터 도보 약 7분 거리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독서를 지속해 온 사람으로, 독서를 “그저 생활”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번역서의 경우 영어 원서를 찾아 읽기도 하며, 나아가 동아리 회원들의 독서를 돕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참여자들은 동아리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표현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당연히” 독서 동아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회적 모임에서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여 독서한다고 언급하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던진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소속 독서 동아리로서 도서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을 아쉬워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B 동아리 참여자들(B-3, B-4, B-5, B-6)은 “10여 년 전 도서관장이 직접 독서 동아리 리더를 맡아 모임을 주도하던 시기”를 회상하며,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참여자(B-3)가 주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C 동아리 참여자들(C-2, C-4)은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시화 전시회 같은 독서 동아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하였다.

3. 독서 경험에 대한 참여자의 감정

전사된 데이터상 감정어 출현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긍정어의 출현이 부정어의 출현보다는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제별 코딩된 발화에서 긍정어는 총 49회, 부정어는 7회 확인되었다. 긍정어는 지속적 혜택 특성 중 인지적·정신적 보상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독서로부터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독서에 있어] ‘성취’와 인내와 ‘만족’은 같이 따르는 것 같아요(A-3),

독서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A-6),

직접적으로도 한 10권을 더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B-3).

이러한 진술들은 독서활동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인지적 자극과 정신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자기강화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인내심 특성의 시간 관리 관련 긍정어가 두드러졌는데,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읽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만족감’이 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B-6)라는 진술은 독서 행위를 시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또한 인내심 특성에 있어 시력 관련 언급에서도 시력 저하라는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인식이 확인되었다. “필요하면 다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A-7)와 같은 진술을 비롯해 다수의 참여자들은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반면, 부정어는 총 7회로 긍정어에 비해 적었으며, 대부분이 인내심 특성 영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시력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부정적 감정이 집중되었는데, “눈의 ‘피로’가 심하고 비문증까지 와서”(A-4), “시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C-3)와 같은 진술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가 독서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시간 관리 영역에서도 “회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B-4) 한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이는 회원들의 독서 부담을 완화하려는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여가 경력 특성 중 정독 및 메모 작성 습관 형성과 관련하여도 “[어려운 책은] 아무래도 지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생기니까”(A-4)라는 언급이 있어 독서가 인지적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토 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소속 시니어 독서동아리 참여자의 독서 경험을 Stebbins(1994; 2009a; 2020)의 진지한 여가 6개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시니어 독서와 독서 동아리 참여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자기 성장과 성찰,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매개하는 여가 활동이라는 통합적 의미를 제시한다. 각 특성별 주요 발견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시력 저하와 시간 관리의 문제를 독서를 위해 인내심이 요구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노화로 인한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연광을 이용할 수 있는 낮 시간 독서와 스마트 기기의 밝기 조정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독서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행위는 진지한 여가의 인내심 특성이 노년기 여가 실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이다. 특히, 시력 저하를 극복하려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인 제약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자기 노력을 통한 여가 몰입의 실천으로 이해된다. Rothbauer와 Dalmer(2018)가 확인한 바와 같이, 독서는 노년기의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정기적 모임 일정에 맞추어 일상을 조정하고 참여를 지속하는 행위는 시간 관리를 통해 인내심이 여가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둘째, 경력 특성에서는 독서의 범위 확장, 정독 및 메모 습관 형성,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활용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행위는 여가 경력의 개발 과정에서 학습적인 노력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력은 개인이 해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며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개발된다. 참여자들은 동아리 참여를 통해 익숙하지 않은 도서 장르를 시도하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 자료나 영상을 참고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이 책과 영화를 연계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탐색하는 사례를 통해 독서 경험의 확장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진지한 여가의 경력 특성이 학습적·탐구적 독서행위로 확장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독서 그 자체에 대한 몰입과 유지라는 개인적인 목표와,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한 노력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아 실천하고 있었다. 정독, 다독, 다회독, 책쓰기 등의 독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목표는 독서에 몰입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 없이 독서활동 유지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도 있어 참여자들에게 독서는 독서 행위 그 자체를 능동적인 몰입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임을 보여준다.

특히 동아리 리더의 기획과 운영,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은 독서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동아리 운영과 참여에 적극 협조를 이끌어 내어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성 확장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개인의 독서에 대한 몰입과 유지 노력이 공동체 운영이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독서 동아리 운영과 참여 자체가 진지한 여가로서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실천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활동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 된다.

넷째, 참여자들은 독서를 통해 인지적 자극과 정신적 안정을 얻으며,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진지한 여가의 지속적 혜택 특성을 뚜렷이 드러낸다. 노년기 독서활동은 신체적인 노화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자극과 정신적 안정을 주어 노년기 삶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작용하며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서의 독서 동아리는 은퇴 이후 선택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회관계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독서와 독서 동아리 활동에 있어 상호 존중과 개방적 태도를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가지는 진지한 여가의 독특한 기풍 특성으로서 독서 공동체의 정신적 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아리 내에서의 토론, 세대 간 이해, 반론 수용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서 성찰적이며 건설적인 소통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시니어 독서 동아리 참여자의 연령대 동질성이 세대 간 교류의 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인식은 진지한 여가 공동체의 개방성이 유지되기 위해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여섯째, 참여자들은 독서를 삶의 “질서”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독서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독서라는 진지한 여가 활동에의 참여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서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하는 활동이라는 참여자들의 진술은 독서가 이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소속된 독서동아리 참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도적 소속감과 정체성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소속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독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자연스럽게 기대했다. 과거로부터 도서관을 경험한 시니어들이 입을 모아 과거에 비해 적어진 독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아쉬워했다. 독서 동아리에 대한 적어진 도서관 관심은 이들에게 상실감의 경험(Mansourian, 2021)이 될 수 있다. 시니어가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의 지속성과 시니어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의 제도적인 지원과 관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곱째, 감정 분석 결과, 긍정 감정이 부정 감정보다 우세하였고, 특히 지속적 혜택 특성에서 인지적 자극과 정신적 안정에 관한 긍정의 패턴이 도출되었다. 이는 진지한 여가가 본질적으로 노력을 통해 얻는 혜택이라는 인과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시력 저하나 피로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현실적 제약으로서 존재했지만, 이를 극복과 해결의 언어로 전환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시니어 독서는 성취와 제약이 공존하는 복합적 경험임을 시사하며, Rothbauer와 Dalmer(2018)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읽는 몸’(reading body)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행위임을 재확인한다.

결국, 시니어의 독서 경험은 인내를 통해 시작되어 경력과 개인적 노력을 거치며, 지속적 혜택과 독특한 기쁨, 그리고 정체성 형성으로 확장되는 순환적 과정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은 독서 동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년기의 독서가 자기 성장과 성찰,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 결합된 진지한 여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I. 결 론

본 연구는 Stebbins(1982; 1994; 2009a; 2020)이 제시한 진지한 여가의 개념을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니어 독서활동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시니어 독서 경험이 진지한 여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시니어에게 독서 및 독서 동아리 활동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소비가 아니라 자기 성장과 성찰,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 결합된 진지한 여가 활동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시니어의 독서 경험은 인내를 출발점으로 하여 경력과 개인적 노력을 거쳐 지속적 혜택과 독특한 기쁨, 그리고 정체성으로 확장되는 순환적 구조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니어의 독서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동시에 이루는 통합적 여가 활동임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Stebbins, 1994)의 개념이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니어 독서 경험에 적용되어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차원에서 작동함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 개념을 개인 중심의 여가 행위에서 도서관 기반의 사회적 실천 영역으로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진지한 여가 연구의 적용 지평을 넓혔다. 특히 시니어 참여자들에게는 독서가 단순

한 즐거움을 넘어 몰입과 자기 규율, 그리고 삶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고, 독서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이 들에 따른 신체적·환경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내심, 새로운 장르 탐색과 정독·메모를 통한 학습적 노력, 상호 존중과 개방적 태도에 기반한 공동체의 독특한 기풍은 시니어 여가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지한 여가의 6개 특성이 시니어 독서활동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천적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시니어 독서 동아리가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을 넘어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하는 진지한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은 시니어 독서동아리를 진지한 여가 커뮤니티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니어 독서 동아리 리더의 역량 강화, 개별 도서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평가 체계에 시니어 독서활동 지원 지표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두 개 공공도서관 소속 세 개 독서동아리의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참여자 전원이 대졸 이상으로 고학력 비율이 높고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단이며, 한 동아리는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본 특성은 진지한 여가로서의 독서 경험, 특히 독서 경력과 정체성 측면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시니어 집단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로서 진실성·전이성·확증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표본의 범위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연령, 성별, 독서동아리 유형을 포함한 풍부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거나, 감정 및 인과 분석을 심화함으로써 노년기 여가 몰입의 인지적·정서적 작용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시니어 독서활동을 개인의 경험 분석을 넘어 사회적·정책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지한 여가의 6개 특성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설계 원리로 구체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시니어 여가와 도서관 실천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우미, 김현애 (2017). 노인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독서치료연구*, 9(2), 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대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처: <https://www.nia.or.kr/>
- 김다은, 차미경 (2016). 고령자를 위한 공공도서관 지역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213-233.
- 김중애 (2024). 고령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3), 359-380.
- 김해인 (2022). 베이비붐 세대 독자 유형에 따른 독서 실태 분석. *한국어문교육*, 39, 279-308.
-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https://www.mcst.go.kr/>
- 박옥화 (2007).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75-396.
- 배경재 (202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3), 199-214.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https://www.mohw.go.kr/>
- 오의경, 박옥남 (2022).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정보이용요구 조사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449-472.
- 온병원, 박상민, 나철원 (2018). KNU 한국어 감성사전. 출처: <http://dilab.kunsan.ac.kr/>
- 이성은 (2024). 노인의 독서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3(4), 549-558.
- 이순영, 김주환 (2025). 시니어 비독자 대상 독서모임 운영의 효과 연구 - '전문가 모임'과 '자율 운영 모임'의 결과 비교. *리터러시 연구*, 16(3), 315-344.
- 임성관 (2011). 노년기 치료적 독서활동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79-93.
- 조은주, 장혜란 (201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259-281.
- 최유진, 차미경 (2019).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21-143.
- 행정안전부 (2025). 연령별 인구현황.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출처: <https://jumin.mois.go.kr/>
- Corbin, J. & Strauss, A.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Dalmer, N. K., Sawchuk, D., & Ly, M. (2023). I felt there was a big chunk taken out of my life: COVID-19 and older adults' library-based magazine leisure reading. *Leisure Studies*, 42(1), 118-132.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Hartel, J. (2003). The serious leisure frontie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obby domains. *Knowledge Organization*, 30(3/4), 228-238.
- Hartel, J. (2006). Information activities and resources in an episode of gourmet cooking. *Information Research*, 12(1) paper 281. Available: <http://InformationR.net/ir/12-1/>
- Hartel, J. (2009). Managing documents at home for serious leisure: a case study of the hobby of gourmet coo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65(6), 872-895.
- Hartel, J. (2014). An interdisciplinary platform for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in the liberal arts hobby. *Journal of Documentation*, 70(5), 945-962.
- Hartel, J., Cox, A., & Griffin, B. (2016). Information activity in serious leisure. *Information Research*, 21(4), 728. <https://eprints.whiterose.ac.uk/id/eprint/103713/>
- Kari, J. & Hartel, J. (2007). Information and higher things in life: addressing the pleasurable and the profound in Information Science. *JASIST*, 58(8), 1131-1147.
- Krueger, R. A. (199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sk, CA: Sage.
- Krueger, R. A. & Casey, M. A. (2015).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ansourian, Y. (2021). Information activities in serious leisure as a catalyst for self-actualisation and social engage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77(4), 887-905.
- OECD (2024). Do adults have the skills they need to thrive in a changing world?: Survey of Adult Skills 2023, OECD Publishing. Available: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o-adults-have-the-skills-they-need-to-t-hrive-in-a-changing-world_b263dc5d-en/full-report.html
- Ritchie, J. & Spencer, L.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In Bryman, A. and Burgess, R., Eds. *Analysing Qualitative Data*. Routledge, London, 173-194.
- Rothbauer, P. & Dalmer, N. (2018). Reading as a lifeline among aging readers: findings

- from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with older adul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40(3-4), 165-172.
- Stebbins, R. A.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 251-272.
- Stebbins, R. A. (1994). The liberal arts hobbies: a neglected subtype of serious leisure. *Loisir et Société / Society and Leisure*, 17(1), 173-186.
- Stebbins, R. A. (2009a). *Serious Leisure: A Perspective for Our Tim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tebbins, R. A. (2009b). Leisure and its relationship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ridging the gap. *Library Trends*, 57(4), 618-631.
- Stebbins, R. A. (2020). *The Serious Leisure Perspective: A Synthesis*. Calgary, AB, Canada: Palgrave Macmillan.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Kyungjae (2021).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s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s for older adul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3), 199-214.
- Cho, Eun Joo & Chang, Hye Rhan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program to reduce stress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259-281.
- Choi, Yujin & Cha, Mikyeong (2019). A study on the elderly people's value system of the public library use: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121-143.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35811.
- Kim, Daeun & Cha, Mikyeong (2016). A study on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213-233.
- Kim, Haein (2022). Analysis of reading status by type of baby boomer generation reader.

-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39, 279-308.
- Kim, Jong-Ae (2024). A study on the elderly's experience of using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3), 359-380.
- Kong, Woomi & Kim, Hyun Ae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 bibliotherapy program for the elderly. *Journal of Bibliotherapy*, 9(2), 1-26.
- Lee, Soon Young & Kim, Joo Hwan (2025). Effectiveness of reading groups for senior non-readers: a comparative study of expert-led and self-managed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6(3), 315-344.
- Lee, Sungeun (2024). Factors affecting book reading practice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13(4), 549-558.
- Lim, Seong-Gwan (2011).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reatment-centered reading activiti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79-93.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3). 2023 National Reading Survey.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vailable: <https://www.mcst.go.kr/>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 2023 Elderly Status Survey.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vailable: <https://www.mohw.go.kr/>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IA (2023). 2023 The Report on Digital Divide. Daegu: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A. Available: <https://www.nia.or.kr/>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5). Population Statistics by Ag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istics by Administrative District. Available: <https://jumin.mois.go.kr/>
- Oh, Euikyung & Park, Ok Nam (2022). A study on information needs of senior users and service improvement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1), 449-472.
- On, Byung-Won, Park, Sangmin, & Na, Chulwon (2018). KNU Korean Sentiment Words Dictionary. Available: <http://dilab.kunsan.ac.kr/>
- Park, Ok-Hwa (2007). A study on the elderly users of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75-396.